



| 특집 |

## 특집 : 러시아와 중국 간 북극항로 컨테이너 운송 협력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YSU) 2024. 6. 20.

### 1. 개요

- 푸틴대통령이 제시했던 2024년 북극해항로(NSR) 물동량 목표 8,000만톤 달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 올해 초 노박 부총리가 실제 4,000만톤 수준에서 달성 가능하다고 밝힘. 북극해항로는 그동안 주로 러 북극자원의 수송로 정도로 활용되어 왔으나 러 정부는 장기적으로(러 정부 NSR 개발계획: 2031-2035) NSR을 글로벌 무역항로로 개발하고자 함.
- 대 러 제재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현재 러시아는 중국 선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극 컨테이너 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중임. 중국 선사들은 대러 제재로 인해 서구 선사가 빠져나간 북극해 운송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어 북극해항로 경유 동아시아-러시아 북서부/발트해 항만 간의 컨테이너 운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본 분석자료는 지난 5월 중순 푸틴 대통령 중국 방문 시의 논의 내용과 6월초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시 거론된 컨테이너 운송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 2. 북극해항로 컨테이너 운송, 러시아의 대 중국 의존도 심화

#### ○ 중국선사들의 북극항로 컨테이너 운송 경과

- **2013-2021년** : 중국 국영선사 COSCO사의 내빙선박들이 갑판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북극해항로를 항해했음. 2021년 14항차 북극해항로 통과운송을 했던 COSCO사는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극해항로 운송을 중단했음.
- **2023년** : 이러한 틈을 타서 러시아-중국 특화 물류업체와 협업하는 중국의 중소선사 NewNew Shipping가 2023년 북극해항로 컨테이너 정기 운송에 착수하여 4척의 선박이 북극해항로 경유 7항차 통과운송을 했음.

#### ○ 2024년 중국 선사의 북극해항로 컨테이너 정기운송 확대

- NewNew Shipping사는 올해 12항차의 북극해항로 컨테이너 운송을 계획 중임. NewNew Shipping사의 컨테이너선들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항만을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 상트 페테르부르크 및 발트해 국가와 연결할 계획임.
- 올해 중국선사 Safetrans Line사는 더 큰 컨테이너선으로 북극해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에 참여할 예정임. Safetrans Line사의 컨테이너선은 NewNew Shipping사 컨테이너선 (2,741TEU XinXin Hai 1) 대비 내빙등급이 낮거나 없지만 규모가 큰 컨테이너선임.

- Safetrans Line사의 컨테이너선 세 척( 4,253TEU급 SFT Turkey, 4,000TEU급 SFT Egypt, 4,890TEU급 Flying Fish 1)이 북극해항로 통과 항해를 신청했음. Flying Fish 1호는 Ice1 등급이지만, SFT Turkey와 SFT Egypt호는 내빙등급이 없는 컨테이너선임.
- **NewNew Shipping과 ROSATOM 2027년까지 북극해항로 연중 컨테이너 운송기로 협약**
    - 중국 NewNew Shipping사와 ROSATOM사는 2027년까지 북극해항로 연중 컨테이너 운송 실현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음(2024.6.6.) 연중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서 5척의 Arc7 컨테이너선 건조가 협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화물 확보를 위한 아르한겔스크항과 무르만스크항 기항이 포함되어 있음. 3년 이내에 연중 북극해항로 컨테이너 정기 운송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러시아정부의 북극해항로 국제통과운송(Transit) 증대 노력**
    - 러시아 정부(로스아톰사)는 2024년 북극해항로 국제통과운송 물동량이 2023년 대비 50% 증가한 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2023년 220만톤). 북극해항로 주요 수송 화물은 석유와 LNG임.
    - 연중 컨테이너 운송 개발이 국제통과운송 물동량 증대에 중요함. 중국과의 협력이 러시아의 통과운송 물동량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난 5월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해항로 개발 공동위원회를 설립했음**
    - 올해 5월 16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 하얼빈시 방문 시에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극해항로를 핵심 국제운송회랑으로 건설하고 북극해항로 물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간 북극해항로 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음. 러 국영원자력공사 ROSATOM의 리하초프 사장은 러시아의 목표는 단기간에 북극해항로 경유 중국의 국제통과운송 물동량을 확대시키는 공동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러시아의 Arc 7 컨테이너선 건조 문제**
    - 현재 운항 중인 Arc7 컨테이너선은 없음. 러시아의 북극 컨테이너 연중 항해를 위해서는 Arc7 컨테이너선이 필수적이지만, 서구의 대러 제재 하에서 러시아의 조선소(즈베즈다)가 독자적으로 Arc7 선박을 건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 Yamal 프로젝트에서 Arc 7 가스 컨테이너선 운반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중국 조선소에 희망이 있음.
- **아시아-유럽 컨테이너 운임 급등과 중국 선사의 북극해항로 컨테이너선 투입**
    - 홍해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에 의한 상선 공격으로 기존 수에즈항로와 희망봉 항로의 운임이 급등했음. 이에 서방의 일부 화주들이 대안항로로 북극해항로 이용을 고려하게 되었음.
    - 중국의 두 컨테이너 선사가 북극해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한 것은 급등한 운임에 비해서 북극해항로 운항의 불확실성 대비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3.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2024, 북극해항로 관련 두 세션 요약

- 포럼기간(6.5-6.8) 중, 북극해항로 관련 "The Northern Sea Route: Expanding Arctic Horizons" 제하의 세션과 "The Arctic Plan: Int'l aspect" 제하의 세션 등 두 세션이 있었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의 전문가들이 불참하면서 주로 러시아 관계자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됨. 중국과 일본의 관계자들도 관련 세션에 계속 참석하고 있음.

#### 1) "북극해항로: 북극 지평선 확장" 세션

##### ○ 러시아 ROSATOM사 북극대표 파노프: 올해 NSR 국제통과운송 물량 3백만톤 달성 계획

- 올해 북극해항로 운항시즌(여름-가을) 중, 국제통과운송 물량 3백만톤 달성 계획임. 2030년 중반까지 2억5천만톤의 물동량 도달할 것임. 로스아톰사는 우랄 소재 기업들의 생산품 수출을 위해 내륙 수로를 NSR 경유 해상운송에 통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Panov는 NSR 개발 관련 러시아-중국간 소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2024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음.
- Rosatom과 중국 NewNew Shipping 간의 계약 체결: Rusatom Arctic사와 중국 Hainan Yangpu NewNew Shipping Co.는 북극해항로 연중 항해를 조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음. 양사는 높은 내빙등급 컨테이너선의 설계 및 건조와 북극 컨테이너 정기선의 공동 운영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임.

##### ○ 중국 NewNew Shipping사 Ke Jin 사장: NSR 경유 중국과 아르한겔스크항 운항 쏠점

- 중국과 러시아 간 북극해항로(NSR), 특히 아르한겔스크 항을 통과하는 항로가 러시아 시장, 수출입 화물량의 한적 뿐 아니라, 유럽으로의 통과운송 발전을 위한 미래 잠재력이라고 생각함.
- 2023년에 우리 회사는 중국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닌그라드, 아르한겔스크까지 8항차<sup>1)</sup> 컨테이너 운송을 완료하여 경험을 쌓고 NSR가 기존 글로벌 물류루트보다 수익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올해 우리는 북극해항로를 따라 아르한겔스크 항구를 통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운송을 특히 강조할 것임.

##### ○ UAE DP World Sultan Sulayem 회장: 북극해항로 컨테이너 운송은 실제 시작되는 것이 중요

- DP World의 Sultan Ahmed bin Sulayem CEO 겸 회장은 북극해항로가 해운 분야의 게임 체인저 임이 입증되었음. 공급망 문제와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전통적인 운송 경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팔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북극해항로 컨테이너 운송이 실제로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 러 극동북극개발부 체쿰코프 장관: 향후 20억 톤의 화물이 북극해항로로 운송될 것임

-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체쿰코프 장관은, 향후 12년 동안 북극해항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1)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의 Ship traffic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중국 NewNew Shipping 보유 4척의 컨테이너선이 북극해항로 경유 7항차 통과운송을 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투자계획에 의하면 총 물동량은 20억톤에 달한다고 말함. 이 물동량은 현재가로 1조 1천억 달러에 달하며, 연방 예산 기준 2,250억 달러의 세수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음. 이 물동량을 구성하는 화물로는 광물자원(비료, 니켈, 코발트, 백금, 구리), 탄화수소 자원(석유, 가스), 펄프 및 종이, 목제품, 다이아몬드가 포함됨.

○ **무르만스크 주지사 치비스: 무르만스크항이 북극의 주요 컨테이너 허브항이 될 것임**

- 무르만스크 항구가 북극의 주요 컨테이너 허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항구 및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무르만스크에서 Lavna 항을 갖춘 무르만스크 수송허브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인 서부 수송물류허브의 실현도 시작되었음. 부동항인 무르만스크항은 연중 내내 운영되며 러시아에서 5대 항구 중 하나임. 2023년의 물동량은 5,800만톤에 달했음

○ **아르한겔스크 주지사 알렉산더 치볼스키: 2030년까지 북극해항로 해안 인프라 완성**

- 아르한겔스크 주지사 알렉산더 치볼스키에 따르면, 북극해항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앞으로 몇 년 안에 수색 및 구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북극 지역이 없을 것이다. 2030년까지 러시아는 초현대적인 쇄빙선대를 보유하게 될 것임. 해안 인프라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함.

**2) "북극 계획: 국제적 측면" 세션**

○ **NewNew Shipping 사 Fan Yusin 회장: 아르한겔스크-상해간 항로("Arctic express No.1") 개발**

- 우리 회사는 러 북극 아르한겔스크- 중국 상해간 항로 개발에 큰 희망을 걸고 있음. 일명 "Arctic express No.1"이라 부를 수 있음.

○ **일본 사사카와평화재단, 해양정책연구소, 히데 사카구치 소장: 러 북극의 수소자원에 관심**

- 러시아 북극에는 상당량의 수소자원이 부존되어 있음. 러시아에서 수소자원 활용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이는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임. 일본은 이러한 방향을 주시하고 있음. (온라인 발표 참여)

○ **로스아톰 북극대표, 블라디미르 파노프: 중국과의 북극해항로 개발 소위원회 설립 협약 체결**

- 지난 5월 중국에서 상기 협약이 체결되었고, 8월에 해당 문서 서명 예정이며, 10월에 첫 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임

**3.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의견**

○ 러시아정부는 서방의 제재 하 상황 속에서도 북극해항로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러 정부는 2025-2030년 기간 중, 북극해항로 상의 연중 국제통과운송을 실현할 것이라고 지난 2022년 발표한 바 있음. **궁극적으로 북극해항로를 글로벌무역항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자원 수송 이외에, 국제통과운송(transit) 물량 확보가 관건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러 정부는 밀착관계 하의 중국 선사들 주도 transit 컨테이너 운송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 로스아톰사는 작년 발표자료에서 아시아국가들과의 쌍무계약 추진으로 2030년까지 북극해 항로 경유 국제운송 화물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음. 중국의 예상 물량은 5천만톤, 한국은 1천만톤, 일본, 베트남, 인도는 각각 5백만톤으로 평가한 바 있음.
- 러 정부는 NSR을 글로벌 무역항로로 개발한다는 장기 목표 달성(2031-2035년)을 위해 현재 로스아톰사를 중심으로 컨테이너운영회사 조직(6월6일. 중국과 계약 체결), 실험단계 transit 컨테이너운송 조직(UAE DP World사와 추진 중. 2021년 이래 두차례 계약 체결), 2027년까지 중국 NewNew Shipping과 북극해항로 연중 컨테이너 정기 운송 계약 체결(6.6. 체결) 등 목표 실현을 위해 실행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서구의 대러 제재로 인해 북극해항로 인프라 개발 및 러시아 북극의 자원 프로젝트 개발이 지연되면서 러시아는 부득이 러시아의 우호국가들과의 협력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중국의 기술과 장비 및 해운서비스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음.
- 서구의 대러 제재 여파로 북극해 운송시장에서 대부분의 외국선사들이 철수하거나 운항을 중단한 상황 하에서, 그 틈새시장에 중국 중소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음. 2022년 초 이래 중국 국영선사 COSCO사가 운항을 중단한 반면, 2023년 7월 중국 중소선사인 New New Shipping사가 북극해항로(NSR) 컨테이너 정기 운송을 발표했다. 올해 운항시즌에는 동사 외에 추가로 Safetrans Line사의 4000teu 컨테이너선의 북극항로 운항도 예정되어 있음.
- 상기 중국의 두 중소선사가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러시아 극동의 발트해 러시아향 컨테이너 운송 수요와 발트해 러시아의 중국, 우리나라와 러시아 극동 방향 운송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동아시아-유럽간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한 시기에 두 해운선사의 북극해항로 경유 운송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중국은 장기적으로 북극해항로(NSR) (러시아정부가 통제) 위쪽의 북극횡단항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 (빙상실크로드 관점)
- 2021년 에브기브호 사태와 후티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 등으로 인한 수에즈항로의 불안정성은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필요로 함. 북극해항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의 한 수단으로 언제든지 고려되어야 할 수송로임.

주요 참고자료

주요 출처: [www.goarctic.ru](http://www.goarctic.ru), 2024.5.17., 2024.6.8., [www.ria.ru](http://www.ria.ru), 2024.6.1., [www.interfax.ru](http://www.interfax.ru), 2024.6.6., [www.tass.ru](http://www.tass.ru), 2024.6.6. [www.neftegaz.ru](http://www.neftegaz.ru), 2024.6.7. [www.foreignpolicy.com](http://www.foreignpolicy.com), 2024.5.30. [www.1prime.ru](http://www.1prime.ru), 2024.6.7. [www.forumspb.com](http://www.forumspb.com), [www.rzd-partner.ru](http://www.rzd-partner.ru), 2024.6.6. [www.portnews.ru](http://www.portnews.ru), 2024.6.6. [www.rbc.ru](http://www.rbc.ru), 2024.3.29.

480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IAL) (E동 5103호)

TEL 051) 540-7350, e-mail : [ial@ysu.ac.kr](mailto:ial@ysu.ac.kr)

Copyright Institute of Arctic Logistics, 2021, All Rights Reserved

끝.